

믿음의 선한 싸움: 선행(딤후 2:8-15)

-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
 - “믿음과 착한 양심”
 - “간구와 기도와 도고(중보)와 감사”
 - “단정”함, “소박함,”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
 - “순종”
 -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
 - “선행”
 - “조용”(공적 예배질서)
-
- 성서시대 유대인 여성들은 아버지 또는 남편의 소유물로서 그들의 지배아래 있었다.
 -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차별되었다.
 - 유대인 여성이 아들을 출산하면 40일만 부정하지만, 딸을 출산하면 80일간이나 부정하였다.
 - 딸인 경우 안식일 날에 이름을 공표하지만, 아들인 경우 제8일째 날에 거행하는 할례의식 때 공표한다.
 - 남자아이는 13세가 되면 계명의 아들이 된다.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아이에게는 그 같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다만 1922년부터는 남녀동등차원에서 재건주의(급진주의)자들과 개혁주의(진보주의)자들이 12세가 된 여성들에게도 성인식을 거행하고 있다. 여자아이들을 계명의 딸이 되게 하는 것이다.
 - 또 1980년대부터는 보수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재건주의자들이 여성을 랍비로 안수하고 있다.
 - 유대인 여성은 회당장 곧 장로나 공회원이 될 수 없었다.
 - 정통주의에서는 지금도 모든 여성과 13세 이하 사내아이들은 본당 곧 성소에 들어가 남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없고, 별도의 공간에서 기도해야 한다.
-
- 이런 차별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매월 첫날을 여성들의 날(Rosh Chodesh)로 정하고 있다. 이날 유대인 여성들에게는 일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 또 각 가정에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촛불을 밝히는 일을 여성들에게 담당시키고 있다.
 - 예루살렘 멸망 이후 언제부턴가는 부계혈통보다 모계혈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 성서시대 여성들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 여성에게 임신과 집안 일 말고는 법적 지위란 것이 없었다.
 - 이혼이 흔했지만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 폭력은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참금을 되돌려 받고 이혼하는 것뿐이었다.
 - 가난은 여성들을 합법을 이유로 매춘부의 길로 내몰았다.
-
- 당대의 그리스 로마인들은 윤리나 도덕개념이 약해 성적으로 문란했고, 우상숭배나 난잡한 바쿠스 축제(여성들의 축제) 등에도 참석하였다.
 - 이런 정황에서도 많은 수의 여신들이 있었고, 존경과 흠숭을 받는 여신들도 있었으며, 비록 대다수가 성창이었지만, 여성사제들이 아주 많았다.
 - 인권이나 참정권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늘 당하고만 산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을 조종할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
-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로 여성들에게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11-12절)고 한 이유:
 - 문란한 사회적 상황, 바쿠스 축제와 그 축제를 주도한 여성 사제들의 광기(플라톤이 언급한 ‘제의 광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 바쿠스 여성 사제들은 디오니소스 지팡이를 들고 머리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며(Head Banging) 광적이고 음란한 춤을 쳤다.
 - 바울이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9-10절)고 한 이유를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소재 에레크테이온의 딸은 머리 기둥여성상 (421-407 BC, Acropolis Museum, Athens Greece)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동쪽 끝에 있었던 보조물(448-429 BC, New Acropolis Museum, Athens Greece)의 일부로서 묘사된 인물들은 왼쪽부터 포세이돈, 아폴로, 아르테미스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복장과 헤이스타일 등을 엿볼 수 있다.



디리소리에 맞춰 소고치며 춤추는 디오니소스 여사제들 (주전 450년경, 파리 루브르). 이 광란의 축제 때 억눌려 살던 여성들이 마음의 치유와 해방을 맛보았다.



바쿠스(디오니소스)축제 때 여성사제들이 광란(헤트빙잉)하는 모습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옷차림을 단정리 할 것과 주의 만찬을 질서를 갖추하라는 바울의 권면과 대조를 이룬다.

●1세기 교회질서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없었던 것은 리더십이었다. 당대 교회들에는 유대교 회당의 3명의 장로들(회당장과 공회원들)에 해당되는 3명의 장로들(목양자와 감독자들)이 있었다. 이 리더십에 여성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교회의 장로들은 국교가 된 4세기경부터 사제(priest)로 바뀌 계급화 되었고, 16세기에 칼뱅과 녹스에 의해서 평신도 장로대의제가 도입되면서 그리스도교(개신교)에서는 사제(priest)가 장로목사(pastor)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1세기 교회질서로 볼 때,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들이 반드시 설교자였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의 리더십인 장로들과 목회자(설교자)를 별개로 본다.

●목회자(minister)가 장로를 겸할 때의 직책이 장로목사(pastor)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설교자와 전도자이다.

●이들 교회들에서는 목양과 감독권이 장로들에게 있고, 목회자(설교자, 전도자)조차도 장로들의 감독을 받는다.

●성서시대에 여성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에 여왕(아달라, 841-835BC, 남왕국의 왕 아하시야의 모친. 북왕국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남왕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결혼동맹)과 사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신약시대에 빌립의 네 딸들은 선지자들이었고, 브리스길라, 루디아, 뵈뵈, 유오디아, 순두게, 테클라(바울 행전)는 여성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11-1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앞서 말한 장로 리더십을 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예언 곧 권면(설교)조차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6-40절에서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도 공적 예배질서를 말한 것이다. 바울은 26절에서 공적 예배순서의 목적을 세움(살림)에 두라고 했고, 31절에서 예언과 방언의 목적을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는 데”에 두되, 40절에서 순차에 따라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했다.

●고린도교회에는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37절) 자들이 남녀 무론하고 많았고, 성도들 앞에 나서고자 하는 자들이 많았다.

●디모데전서 2장 9-15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바울은 여성들에게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과 검소함과 선행과 순종함과 겸손한 배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로 삼으라고 했고,

●이브가 뱀에게 속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지만, 해산으로 새 생명이 탄생 되듯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실사 그것이 해산의 고통과 같을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값진 일이요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했다.

결론

●그러므로 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훌륭한 여성성(단정함, 소박함, 정절, 검소함, 선행, 순종, 겸손한 배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로 삼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 리더십(딤편 3:1-7)

●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

- “믿음과 착한 양심”
- “간구와 기도와 도고(중보)와 감사”
- 남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 여자: “단정”함, “소박함,”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 “선행,” “순종,” “조용”(공적 예배질서),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
- 리더십: 장로(감독자, 목양자), 집사(봉사자)

● 감독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 감독 직분은 훌륭한 것이다.

● 감독은 장로(감독자, 목양자)를 일컬은 말이다.

● 개 교회마다 3명씩 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유대교 회당의 3명의 장로들이 회당장, 공회원, 율법판사였던 것처럼, 장로들은 개교회의 당회장, 감독자, 목양자였다(행 20:28).

● 감독(장로=목양자)과 집사(봉사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솔하는 지휘관과 부사관이다.

●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2:11-12)의 뜻:

● 교회의 리더십을 남자들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 “여자들은 교회에서 병어리처럼 지내라 혹은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뜻이 아닌 이유:

● 여성들은 교회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들이고 뛰어난 봉사자들이며 일꾼들이기 때문이다.

● 리더십은 사모할만한 훌륭한 직무이긴 하지만,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으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할(행 20:28-35) 믿음의 선한 싸움의 지휘관과 부사관의 직무이다.

● 그런데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고, 아버지와 남편에게 부속되었던 여성들이 (당대의 종교 문화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 리더십을 맡기에 부적절했을 수 있다.

바울의 직무 수행 방법

●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 함으로써,

● 자기와 동행들의 쓸 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함으로써,

●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 범사에 모범을 보임으로써(행 20:28-35).

장로(감독자, 목양자)의 자격(딤편 3:1-7)

● 1세기 교회질서에서 장로(감독자, 목양자)들은 임명직이 아니라 회중에 의해서 뽑힌 후 안수를 받고 목양권과 감독권을 가졌던 불박이 목회자들이었다(행 6:3, 20:28, 딤편 5:17, 약 5:14).

● 선교지역에 세워진 개척교회들에서 그들을 장로(감독자, 목양자)로 장립한 이들은 바울, 바나바, 디도, 디모데와 같은 떠돌이 전도자들이었다(행 14:23, 딤편 1:5).

● 떠돌이 전도자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들을 세웠으나, 대체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 따라서 지역교회들은 장로(감독자, 목양자)들의 리더십아래 놓여 있었다.

● 새로 조직되는 교회들에는 장로들이나 장로회가 없었으나 루스드라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때 세워진 교회였으므로, 장로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동행하기 위해서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았다(딤편 4:14. 행 13:3).

- 책망할 것이 없으며,
-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딤후 1:6),
- 절제하며,
- 신중하며,
- 단정하며,
- 나그네를 대접하며,
- 가르치기를 잘하며,
-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 구타하지 아니하며,
- 오직 관용하며,
- 다투지 아니하며,
-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하며,
-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 개 교회가 장로(감독자, 목양자)들의 사목을 전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때들이 복음전도자 시대가 끝난 1세기말부터였다.
- 392년 제국의 국교가 되고, 성체신학(Mass)의 발전으로 장로들을 사제(제사장)로 호칭하게 되었고,
- 사제(장로) 밑에 부제(집사), 사제 위에 주교(감독), 주교 위에 대주교, 그 위에 가톨릭에서는 추기경(Cardinal)과 교황(Pope)의 직제가 생겼으며,
-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總大主教, Patriarchs)가 생겼다.
- 따라서 **목사(목양자)**라는 호칭은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미국 감리교 등에는 없는 직책이다.
- 당연히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도 없었던 직책이다.
- 전통교회들에서는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는 1400여 년간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었으므로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신자들 때문에 **설교자는 물론 대표기도자도 없**었다.

- 16세기에 이르러 가톨릭교회 사제들이었던 **마르틴 루터, 울리히 츠빙글리, 장 칼뱅, 마르틴 부처가 사제(priest)라는 호칭을 버리고 대신에 목사(pastor, 목양자)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 장 칼뱅과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 대의제도를 개혁주의 교회들(오늘날의 장로교회들)에 도입함으로써** 생긴 것이 1년 임기의 **선출직 장로들**이었다.
- 국가교회 또는 시의회 교회였으므로** 시의회가 선출하였는데, **제네바 교회의 경우, 치리회**는 소의회에서 선출된 2인, 60인 의회에서 선출된 4인, 200인 의회에서 선출된 6인 등 12인의 평신도들과 목사들로 구성되었다. 선출된 평신도들은 **“치리 장로”**의 호칭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1년의 임기로 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훗날 인물난으로 인해서 종신직이 되었다.
- 이때부터 그리스도교(개신교)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나뉘게 되었고**,
- 1850년대 미국에서 **목사가 장로인가** 혹은 **목사는 장로가 아닌가**라는 논쟁이 불거졌다.
- 그리스도교(개신교) 역시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한** 시의회교회 또는 국가교회체제였다.
-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나라는 미국이며, **1791년 12월 15일 채택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서였다.
-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딤후 5:17)고 하였다.
- 사도, 선지자,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이었다(갈 6:6, 딤후 4:13).
-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라고 하였다(고전 12:28).

믿음의 선한 싸움: 리더십(딤후전 3:8-13)

●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무기

- “믿음과 착한 양심”
- “간구와 기도와 도고(중보)와 감사”
- 남자: 분노와 다름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 여자: “단정”함, “소박함”,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 “선행,” “순종,” “조용”(공적 예배질서),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
- 리더십: 장로(감독자, 목양자), 집사(봉사자)

11절의 “여자들”은 집사들인가 집사들의 아내들인가?

- 문맥상 집사들의 아내라는 주장도 있고(NIV, KJV),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구절로 봐서 여자 집사라는 주장도 있다.
- 또 집사들의 아내와 여자 집사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헬라이어 ‘디아코노스’(diakonos)는 종종 ‘집사’로 번역되기도 한다.

“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 뵈뵈는 집사였는가 봉사자였는가?

● 뵈뵈가 ‘종’ 혹은 ‘일꾼’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집사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뵈뵈를 “겐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a diakonos of the church in Cenchrea)라고 썼는데,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일꾼, 집사, 장관 등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 심지어 사도들과 예수님도 ‘디아코노스’였다.

● 영어성경 KJV과 NIV는 로마서 16장 1절의 디아코노스를 ‘종’(servant)으로 번역하였다.

● 단 NIV는 각주에서 “뵈뵈는 바울의 동료 신자로서 바울의 편지를 로마로 가져갔을 것이다. ‘종’이란 ‘섬기는 자’(servant)이거나 ‘봉사하는 자’(minister)를 말한다. 로마서 16:1-2에서처럼 디아코노스가 교회와 연관될 때는 그것이 특정한 직책 곧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설을 달았다.

● 반대로 NRSV는 ‘집사’(deacon)로 번역하고, 각주에 ‘봉사자’(minister)라는 해설을 달았다.

● 뵈뵈가 디아코노스(diakonos)였다고 해서 여자 집사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사도로 번역된 ‘아포스톨로스’(apostolos)가 항상 사도를 뜻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써 바나바(행 14:14), 아볼로(고전 4:9), 실루아노와 디모데(살전 2:7)에게도 쓰였으나 직제로써의 ‘사도’는 12제자와 바울에게 국한된다.

● 디모데전서 3장에 쓰인 ‘감독’(bishop)도 마찬가지이다. 감독은 장로를 지칭했을 뿐 오늘날의 사제계급인 감독(주교)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 안식일교회 신학자 낸시(Nancy Vyhmeister)는 ‘역사로 본 여자 집사의 사역’(The Ministry of the Deaconess through History)이란 글에서 초대 교회에 안수 받은 여자 집사가 존재했었다고 보았다.

● 낸시는 여자 집사들이 여성들이 침례 받을 때 조력하는 자들이었고,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이었으나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뵈뵈(Phoebe by Leo Pfisterer)

여성들이 침례 받을 때 여성 집사들의 조력이 필요했던 이유

●**첫째**, 고대 그리스도교 침례는 벌거벗은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세 번 침수를 했다. 이 때문에 감독(장로)이 벌거벗은 여성에게 침례를 베풀기가 난감했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개종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개종침례를 받아야 하는 유대교에서는 개종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3명의 여성 조력자들이 랍비를 대신해서 침례를 베풀어왔다. 이 때 랍비는 문밖이나 차단막 밖에서 의식을 집전한다.

●**둘째**,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조직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침례가 주로 강에서 새벽이나 밤에 베풀어졌지만, 신체접촉은 여전히 난감한 문제였을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여성 조력자들 곧 안수 받은 여자 집사들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서 말한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조직과 제도가 정비된 이후에는, 특히 예배가 성체(빵)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Mass)로 발전된 이후에는 여자 집사의 역할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

●게다가 수녀회가 조직되고 침례 대신에 약식세례를 시행한 중세기에는 더더욱 여자 집사란 제도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다만 오늘날의 가톨릭교회는 사제의 말단계급인 ‘부제’(혹은 ‘보제’, 신학대학원 졸업반 학생들)라 불리는 집사와는 별도로 ‘봉사자’ 개념의 평신도 사역자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을 가톨릭에서는 ‘minister’라 부른다.

●참고로 유대교에서 행하는 침례의식(Tevilat Keilim)은 반복적인 정결례로써 그리스도교에서 행하는 단회적인 침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성서시대 때부터 유대교인들은 정결례를 위한 침례탕을 구비해놓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는 예루살렘 근교인 세레 요한의 고향인 에인 케렘에서 2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식용 침례탕이 발견되었고, 2019년 3월에는 서울 남산 인근에 유대교인들의 정결침례와 이방인들의 개종침례를 위한 의식용 침례탕(Mikvah)이 설치된바가 있다.

●유대교에서의 침례는 미슈나 구전이 정한 정결례(Tohoroth)이지 회개나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출산이나 월경, 배우자와의 잠자리 뒤에도 의식용 침례탕(Mikvah)에 들어가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당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 새로 구입한 부정한 식기를 의식용 침례탕이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 등)에 담갔다가 꺼냄으로써 정(kosher)하게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유대교 개종자에게 요구되는 침례도 마찬가지 의미라 볼 수 있다.

●유대교 침례의식은 반복적이지만, 단 개종 침례만은 단회로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비잔틴 교회의 여성 일꾼 루디아(Lydia)



고린도교회와 에베소교회의 일꾼 브리스길라(Priscilla)

뵈뵈를 여자 집사로 봤던 교부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155-220), 오리젠(185-254), 크리소스톰(347-407), 데오도렛(393-460).

- 비두니아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도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두 명의 “ministrae”를 언급하였는데, 이 단어는 ‘여자 집사들’ 혹은 ‘여자 일꾼들’로 번역될 수 있다.
- 감람산 인근 굴무덤에서 “소피아 곧 그리스도의 종과 신부, 집사, 제2의 뱀뱀 여기에 눕다.”라고 새긴 4세기 후반의 석비가 발굴되었고,
- 카파도키아에서도 “마리아 집사”라고 새긴 6세기경 석비가 발굴된바 있다.
- 451년에 개최된 칼케돈 공의회 문서에는 “40세 이하의 여자를 집사로 안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 〈교부들의 삶〉(Liber Patrum)은 “여자 집사들은 정숙하고 젊잖아야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침례를 베푼다. 사제들이 벌거벗은 여성들의 몸을 보는 것이 절절치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 4세기 후반의 〈사도헌법〉(The Apostolic Constitutions)은 감독에게 남녀 교회지도자들의 안수에 관해 지시하고 있고, 감독이 여성에게 안수할 때 드리는 기도문까지 적었다.
- 이처럼 현존하는 자료들로 볼 때, 1세기 교회시대이후 곧 2세기부터 13세기까지는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안수 받은 여자 집사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렇더라도, 1세기 교회시대에 교회직제로써의 여성 장로(감독)나 여성 집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 그렇다고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을 지닌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1세기 교회질서에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드물게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한 교회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 1세기 교회질서에 여자 집사 장립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디모데전서 3장 8-13절이다.
- 특히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가 그것을 입증한다.
- 아무튼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한다”(8-9절)고 했고,
- “책망할 것이 없는”(10절)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 13절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좋은)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확신)을 얻는다.”고 하였다.

결론

- 1세기(거의 부정), 2-13세기(부분 인정), 14-19세기(거의 부정)에 교회에서의 여성 리더십은 부정되거나 부분 인정되었으나 20-21세기, 특히 제1-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추세가 긍정 또는 인정으로 바뀌고 있다.

하나님의 가족(딤후전 3:14-16)

- “하나님의 집”(15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곧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 “진리의 기둥과 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산실인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기초라는 뜻이다.
- 하나님의 집의 진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전한 전통 곧 신약성경이다.
-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고백하고 믿는바 진리(신약성경의 복음)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보루, 진리를 전파하는 스피커들이다.
- 그리스도인들이 사수하고 전파하는 진리는 어디서 왔고 유지되는가?
- 그 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전에서 비롯되고 지속적인 고백으로 유지된다.
- 그 진리는 신비하고 비밀스럽다(16절).
- “경전”은 무엇이고, “비밀”은 무엇인가?
- “경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사수하며 전파하는 진리 곧 믿음의 내용을 말한다.
- “비밀”은 “참된 경전에서 분출되는 신비”(TNIV)를 말한다.

경전의 비밀(신비) 6가지(16절)

- 첫째, “그분은(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 둘째, 그분은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다.”
- 셋째,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 넷째, 그분은 “만국에 전파되셨다.”
- 다섯째, “세상이 그분을 믿었다.”
- 여섯째, “그분은 영광에 싸여 들려 올라가셨다.”
- 이 6가지는 그 자체가 신비한 경전의 내용, 진리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다.
- 이것들은 325년 니케아 신조에 담겼고, 이후 사도신경을 비롯한 많은 신앙고백서들에 담겨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다.
- 바울은 이 내용을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고 했는데, 그 뜻은 “논란의 여지없이”(NKIV), “모든 의문을 뛰어넘어”(NIV), “이구동성으로”(NASV)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 경전과 진리와 믿음의 내용이 신비한 또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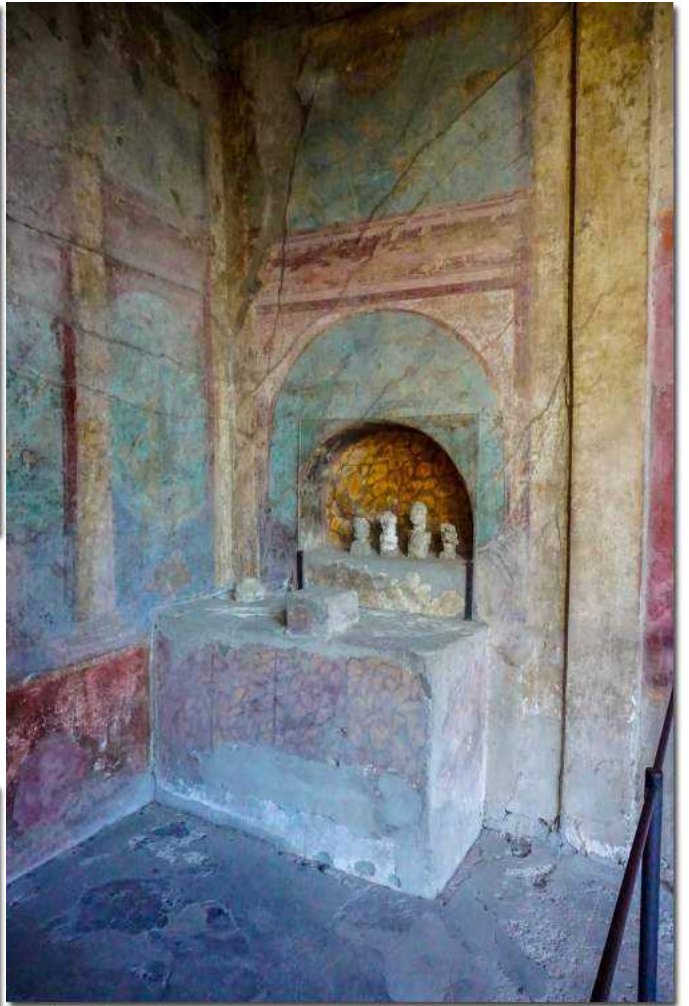
-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신비하게도 믿어지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싫고 어리석게만 여겨지기 때문이다.
- 또 그것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로마인들의 가족 신(딤후전 3:14-16)

-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집에 팔려 집을 지키는 가족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
- 하나님이 자기 가족에 속한 수호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 가족을 구성하는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 하나님이 가족 신이라는 생각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
- 가족은 피를 나눈 작은 이익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다른 많은 가족들과 차별된다. 또 우리 가족 신 또는 조상신들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수호신들이다. 따라서 우리 가족 신 또는 조상신들은 다른 많은 가족들을 위한 신 또는 그들의 조상신들과는 다르다. 따라서 예배형식도 가족마다 조금씩 달랐다.
- 반면에 피의 공유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공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는다.
-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많은 수의 각기 다른 피를 나눈 가족들이 모여도 그들은 다 한 믿음을 공유한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점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신을 따로 모실 필요가 없었다.
-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가톨릭교회가 이방인들의 관행이었던 가족 신 숭배를 그리스도교 신앙에 혼합하여 개종이전에 가족신상들을 놓았던 벽감실에 십자고상, 성모상, 성모자상 또는 수호성인상을 놓도록 허용하였다.



에베소에서 발굴된 주택의 벽감실
 벽감실은 가족 신들, 특히 가정의 수호신들과 집을 지키는 조상의 혼령들을
 모신 성감을 말한다. 사진에 보이는 벽 앞쪽에 장식된 두 작은 기둥
 안쪽이 벽감실이다.



잘 보존된 폼페이 유적의 벽감실과 모셔진 가족 신상들.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의 노예들까지 다함께 이곳에서 매일
 제사나 기도를 바쳤다. 출정하는 군인이나 여행을 떠나는
 자가 출발에 앞서 현주하며 안전을 빌었던 제단이기도 하다.



아테나인 가족이 그려진 적화도기 암포라의 앞뒷면
 완전무장한 군인이 전장터로 떠나기 전에 가족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악수를 하는 남자는 이 군인의 부친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들에게 현주를 제주병과 잔을 들고 선 여자는
 이 군인의 모친이었거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은 가족 신들을 집에 모셨다.
- 가족 신들이란 가정의 수호신들이나 집을 지키는 조상신들을 말하며, 이들을 집에 모시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집안 한쪽 벽에 벽감실(성감)을 갖추고 있었다.
- 그들이 가정에 모셨던 신들은 잘 알려진 주신들이 아니라, 하찮은 신들이었는데, 가장 흔한 신들이 가족의 조상신들이었다.
- 조상신들은 생전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보상으로 특별히 영적 존재로 격상된 조상들이었다.
- 이들 조상신들의 역할은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 대신에 노예까지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벽감실(성감) 앞에서 매일 제사(현주)와 기도를 바쳤다.
- 따라서 가족 신들은 가족들과 그들의 노예들로부터 주신들보다도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거의 매일 제사와 기도를 받았다.
- 또 벽감실은 출정하는 군인이나 긴 여행을 떠나는 자가 출발에 앞서 현주하며 안전을 빌었던 제단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가족 신(답전 3:14-16)

- 조상신 숭배는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에서 수천 년에 걸쳐 전해져온 가정신앙이다.
- 한국의 조상단지는 가정신앙에서 조상숭배를 위하여 모시는 귀신 곧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조상신의 신체(神體)로서 조상의 유골, 신위(위패) 등을 안치(대신)하는 작은 향아리나 자루, 상자, 선반 등을 말한다.
- 조상단지이외에도 신주단지, 세존, 제석 등이 있다. 조상단지나 신주단지에는 대개 쌀이 담기고, 세존과 제석도 쌀을 담아 걸어둔 자루인데, 그 자체가 신체 곧 신의 몸이요,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귀신이며, 가족 신이자 조상신인 것이다.

집안에서 조상을 섬기는 방법에는 3가지

- 첫째는 유교식 제사를 통해 조상신을 모시는 것이다.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드리는 조상으로, 종가에서는 4대를 제사로 받들고(봉사), 5대째 조상부터는 철마다 드리는 제사를 올린다(시제). 조상의 위패는 사당이나 벽감실에 모셔둔다.
- 둘째는 가족의 수호신으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때의 조상신은 유교식 조상신과 달리 모든 조상을 신으로 대하고 서열도 무시한다. 조상신은 유교적 관념에 따라 종손 집에서만 모신다.
- 셋째는 경기와 충청도 일대에서는 '왕신'이라고 하여 특별한 조상신을 섬기는데, 단지에 쌀이나 상자 안에 한복 등을 넣어둔다. 예를 들어 병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가 단명하면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종손 집이나 아니냐에 상관없이 한두 세대만 집안의 조상신으로 모신다.
- 지역에 따라 조상신은 집안의 으뜸 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경기도 내륙지방에서는 시월상달(으뜸 달) 고사 때 안방에서 제일 먼저 제사를 올린다. 떡시루도 다른 신체 곧 조상단지보다 크다. 시월상달 고사 말고도 봄가을과 칠월칠석에 날을 잡아 조상단지의 쌀을 갈아 넣는다. 제사를 지낼 때 차리는 음식은 메(밥), 과일, 조기, 채소 등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미역국을 바치기도 한다. 설과 추석 차례 때는 메 대신 떡국이나 송편을 바친다. 이때 조상단지 안에 있는 쌀의 상태를 보고 길흉을 점치기도 한다. 조상단지의 묵은쌀은 가신의 특별한 뜻이 담겼으므로 밥을 지어 반드시 식구끼리만 먹는다.



한국의 조상단지들

좌측: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당동마을(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우측: 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동마을(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조상단지는 가정신앙에서 조상숭배를 위하여 모시는 귀신 곧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조상신의 신체로서 조상의 유골, 신위(위패) 등을 안치(대신)하는 작은 향아리나 자루, 상자, 선반 등을 말한다. 조상단지이외에도 신주단지, 세존, 제석 등이 있다. 조상단지나 신주단지에는 대개 쌀이 담기고, 세존과 제석도 쌀을 담아 걸어두는 자루인데, 그 자체가 신체 곧 신의 몸이요, 집에 딸려 집을 지키는 조상신이며, 가족 신인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 결론(답전 3:14-16)

-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들 집에 딸려 자기들 집을 지키는 가족 신으로 여기지 않았고,
-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만으로 믿지 않았으며,
-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인류가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 곧 형제자매가 된다는 위대한 사상으로 인류애를 실천하였다.

믿음의 선한 싸움(딤후 4:1-5)

- 1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것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대구로 차용하였다.
- “성령이 밝히” 하시는 말씀은 신자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신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의 가르침 곧 그들이 전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한다.
- 이 적대자들과 펼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쓰인 글들이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이다.
- 적대자들이 여우처럼 에베소교회들에서도 기초를 허물려고 했지만, 고린도교회들과 갈라디아교회들에서처럼 잘 막아내고 있었다.
- 그렇다고 적들이 공격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교회를 책임진 디모데에게 혹 있을 그들의 공격에 대비할 것을 부탁하였다.
- 10여 년 전 디모데는 고린도교회에 적대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린도교회에 파송되었으나 연소함 때문이었는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디모데가 완수하지 못한 임무는 노련한 디도가 처리하였다.
-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유대인 에비온파가 양심에 ‘사탄의 노예’란 낙인이 찍힌 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란 뜻이다.
- 또 그들의 가르침은 위선에서 나온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고, 신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임을 말한다.
- “화인을 맞았다”는 말은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노예 곧 ‘사탄의 노예’라는 뜻이다.
- 화인은 불에 달군 인두로 노예의 몸에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탄의 노예들의 가르침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인가?

- 사무엘 진너(Samuel Zinner)는 <도마 복음>(The Gospel of Thomas, The Matheson Trust, 2011)이란 책에서 그들이 유대인 에비온파라고 확신하였다.
- 진너는 적대자들을 두 개의 그룹, 곧 헬라인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인 에비온파로 나누지 않고, 둘이 통합된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로 보았다.
- 바울은 에비온파가 사용하는 언어들에 이용하여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구조적으로 왜 병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 에비온파의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데”(고전 2:9-10) 있었다.
- 에비온파가 예루살렘교회의 권위로 선생노릇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것으로 진너는 보았다.
- 진너는 고린도전서 6장 12-13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말하는 자유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는 금욕을 외친 자들을 에비온파로 보았다(128쪽).
- 에비온파는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음식에서만 금욕을 주장했는데 바울은 그것이 서로 상반된다고 보았다(129쪽).
- 진너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도 에비온파가 주장하는 독신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 그리스도교 이전 유대인들은 결혼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후에는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부부의 합방을 삼갔는데, 랍비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모세를 꼽는다. 모세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후에 항구적인 독신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 1세기 에센파도 가족부양이 끝난 다음에만 독신자가 되었다(129쪽).
-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와 관련된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의 교리는, 진너에 따르면, 지혜와의 결혼이 언급된 히브리어 성구와 독신생활의 전통과 금욕주의가 언급된 랍비 문헌

- 들에서 증명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1세기 유대교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잡언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하고 있다(잡언 8:22, 7:4).
- 진너는 고린도에서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가 그들이 지혜로 침례를 받았다는 뉘앙스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이전 유대교에 이미 지혜와 성령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것은 단일신(유일신)론을 믿었던 예루살렘 에비온파가 성령을 지혜로 곧 지혜의 의인화로 가르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131쪽).

답전 4:1-5의 결론

- 3-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바울이 토라를 지키는 에비온파 사이에 퍼진 독신 관행과 ‘카사룻’(kashrut) 음식법을 반대한 것이다.
- 유대교 음식법의 핵심은 고기제품과 유제품을 함께 먹거나 섞거나 담거나 씻거나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거룩히(kadosh)하라는 것이다.
- 이에 바울은 혼인이든 음식물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선용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 바울은 고기제품과 유제품을 (유대교의식에서) 철저히 구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유대교의식에 상관없이)고 하였다.
- 그리스도교의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은 천지만물을 선하게 보고 선용(정신이든 물질이든 과학과 기술에서)하는 것이다.
-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것이 창조신앙이요, 부활신앙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딤후전 4:6-10)

신화와 족보를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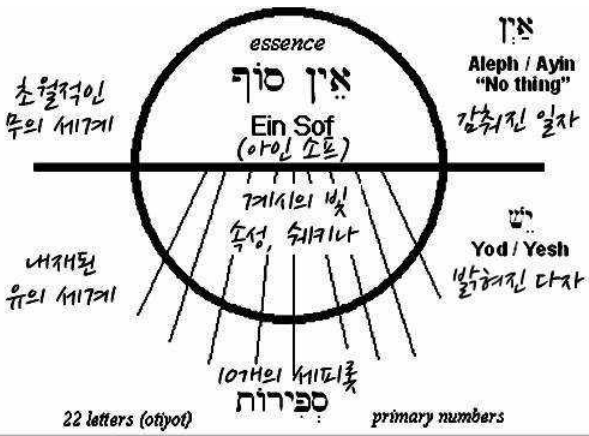
-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그 형제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집사)이 될 것입니다.’라는 뜻이다.
-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믿음(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라는 뜻이다.
-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는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믿음(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다.
- 9절 “미쁘다 이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는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라는 뜻이다.
-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우리가 수고하며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이다.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

-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신화, 족보, 역측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바울이 유대인 에비온파를 반박하는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 신화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동안 만들어진 그리스로마신화를 의미한 것일 수 있다(주전 8세기경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8-7세기경의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및 주전 1세기경의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 족보는 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인 태초의 신에게서 나온(유출/발산) ‘세피롯’(sefirot)을 말한 것일 수 있다.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카발라인들)은 태초의 신 혹은 태초의 빛 곧 무의 세계에 계셨던 유일하신 초월적 존재를 ‘아인 소프’(Ein Sof, Infinite One)라고 부른다.
- ‘세피롯’(Sefirot)은 태초의 신 ‘아인 소프’(Ein Sof)에게서 나온(유출/발출, procession) 10개의 하나님의 특성(쉐키나/Shekhinah 곧 계시의 빛, 형상)을 말한다.
- ‘아인 소프’ 곧 하나님은 이들 10개의 세피롯을 통해서 피조물과 상호작용한다고 말한다.
- 10개의 ‘세피롯’은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또는 아담의 몸체 모양으로 배열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케테르(Keter, 왕관), 호크마(Chokhmah, 지혜), 비나(Binah, 이해), 헤세드(Chesed, 사랑), 게부라(Geburah, 능력), 티페레트(Tiferet, 영광), 네짜흐(Netzach, 승리), 호드(Hod, 존귀), 예소드(Yesod, 기초) 그리고 말쿠트(Malkut, 나라)로 구성된다고 한다.
- 유대인 신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 10개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다.
- 세피롯의 중하부의 특성들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명시적으로 순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주님, 위대함(Gedulah)과 능력(Gevurah)과 영광(Tiferet)과 승리(Netzach)와 존귀(Hod)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Malkut)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Ein Sof)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 ‘세피롯’ 생명나무에서 ‘다아트’(Da’at)는 지식(토라)을 뜻하며, 모든 ‘세피롯’(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로 연합되는 곳이다.
- ‘다아트’(지식/토라)에서 모든 ‘세피롯’(하나님의 형상)은 끊임없이 나눔으로써 완성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Torah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성된 상태가 된다).
- ‘세피롯’의 첫 아홉 개는 ‘아인 소프’(하나님)에서 직접적으로 나온(유출/발출) 속성들이고, 마지막 ‘말쿠트’(Malkut, 나라)만 ‘아인 소프’의 창조에서 발출(generation)된 현상계 곧 물질세계라고 말한다.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태초의 빛 곧 영원한 무의 세계에 계셨던 유일하신 초월적 존재를 '아인 소프' (Ein Sof)라고 부른다. 우리는 이법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아인 소프에서 유출(발산)된 '쉐키나' (Shekhinah) 곧 하나님의 속성과 계시의 빛 열 가지들을 '세피로트' (Sefirot)이라 하는데, '아인 소프' 곧 하나님은 이 열 가지 세피로트를 통해서 우주와 상호작용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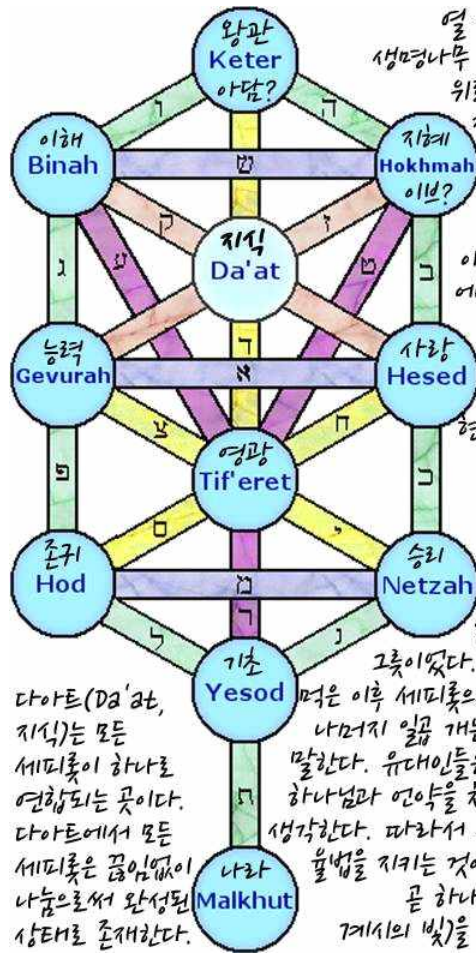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화과나무이고, 그것은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영지주의자들이 빛의 사자라고 말한 바도 지혜와 맞닿아있어서 여성으로 표현되었다. 잠언서에서도 지혜가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 되었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칠십십이경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에서는 하나님이 낳으시고 창조하신 자로 표현되었다(8:22). 또 잠언 7장 4절은 "지혜(chokhmah)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병행론(Binah)에게 너는 내 친족(kinsman)이라"고 했는데, 아가서 4장 12절은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했다. 이를 유대교 신비주의로 풀면 "내 누이"는 하나님이 낳으시고 창조하신 지혜요, 아담의 아내를 말한다.

- '최초의 인간 '아담 카드몬'(Adam Kadmon)은 이들 열 개의 '세피로트'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이었다.
-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 열 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다.
-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세피로트'의 상위 세 개 곧 왕관, 지혜, 이해(지관)는 부분적으로, 나머지 일곱 개 곧 사랑, 능력, 영광, 승리, 존귀, 기초, 나라는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말한다.
-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2532년(586 BC-AD 1948) 동안 완전히 깨진 나라였다.
- '유대인들은 이것을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내용인 토라(율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를 완수하여 '세피로트' 곧 하나님의 형상(쉐키나, 속성, 계시의 빛), 특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 '이것이 유대교인들이 율법에 목숨을 거는 이유이고, 바울과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이유였으며,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 이단이 교회에 침투한 이유였다.
- '유대전통에서는 모든 유대인의 영혼들이 토라를 받던 시기에 존재했었고, 그곳에 있었으며, 시내산 언약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 '그것은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이다.

- '참고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성(人性), 즉 지성(이성), 감정, 의지, 사회성을 말한다.
- '인성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만이 가진 공통적인 특질이다.
- '동물은 약간의 지능과 감정과 의지와 사회성이 있지만, 인간처럼 지성으로 학문을 창출할 수 없고, 감



열 가지 세피로트는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또는 아담의 몸체 모양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배열되는데 잠언 7장 4절과 역대상 29장 11절에 명시적으로 순서적으로 언급되어있다. 세피로트 중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아인 소프에서 직접적으로 유출된 속성들이고, 마지막 열 번째 말쿠트(Malkut)는 아인 소프의 창조에서 유출된 현상계 곧 물질세계이다. 아인 소프가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 카드몬(Adam Kadmon)은 이 열 개의 세피로트 곧 하나님의 형상, 쉬키나, 속성 혹은 계시의 빛을 담은 그릇이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세피로트의 상위 세 개는 부분적으로, 나머지 일곱 개는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를 완수하여 세피로트 곧 하나님의 속성(쉐키나, 형상, 계시의 빛)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다아트(Da'at, 지식)는 모든 세피로트가 하나로 연합되는 곳이다. 다아트에서 모든 세피로트는 끊임없이 나눔으로써 완성된 상태로 존재한다.

성을 문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없으며, 본능 말고는 의지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 또 인간들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문명형태의 사회, 경제, 정치 구조나 관계형성을 이룰 수 없다.

- ‘그러므로 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예배자로서, 만물에게는 청지기로서, 예배와 찬양, 관리와 보전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인간이 관심하는 신학과 신앙은 지성과 감성보다는 결단과 관계회복에 비중을 둔다.
- 형상이 그릇이라면, 성령님의 열매는 형상의 내용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엡 4:24), 사랑, 희락, 화평, 견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다(갈 5:22-23).
- 그러나 형상의 내용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다. 그 내용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다(갈 5:19-21).
- 형상의 회복은 율법준수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 (딤후 3:5)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다.

경건을 훈련하라!

- 이 같은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와 족보와 억측을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라 곧 믿음(신심)을 단련하라고 권면하였다.
-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한 것은 유대인 에비온과 이단자들이 금욕과 독신생활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세피롯’의 두 번째가 ‘지혜’(Lady Chokhmah)인데, 바울은 유대인 에비온파가 이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토라(율법)의 교사들이 되기를 원한다(딤후 1:7)고 비난하였다.
- 유대교인들은 유일신론(단일신론)자들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혜와 동일시하였다. 또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동정녀 탄생 등을 믿지 못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딤후 4:6-10): 결론

-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곧 신약성경의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집사)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다.
-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믿음(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라.’는 뜻이다.
-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는 ‘율법과 규례, 금욕, 독신생활은 조금 유익하지만, 경건(믿음)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복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는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라는 뜻이다.
-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우리가 수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세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다.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훈련하라!(추가)

- 이 점에 있어서 사무엘 진너(Samuel Zinner)는 〈도마 복음〉 (*The Gospel of Thomas*, The Matheson Trust, 2011) 이란 책에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헬라 영지주의 형태가 아니라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식 토라주석의 형태로 보았다. 바울의 적대자는 디도서 1장 10절에 언급된 “할레파”였고(143쪽),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딤후 1:14)고 보았다. 따라서 디도서 3장 9절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는 권면은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또는 할라카 문제들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는 것

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언급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대한 논쟁을 디모데후서에서도 이어 갔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에비온파의 주장을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폄훼하였다. 에비온파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첫째, 카발라주의자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음가인 숫자로써, 예를 들어 666(거짓 선지자)과 888(예수)처럼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인 게마트리아(gematria); 둘째, 말장난; 셋째,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 하는 것처럼 단어들의 세피루트식 의인화; 넷째, 토라의 단어들에 내재한 비밀을 신비스럽게 해석하는 소드(sod)가 그것들이다. 바울은 이들을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라고 하였다. 디모데후서 2장 17-18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고 했는데, 특히 후메나오와 빌레도(Hymenaeus and Philetus)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유일하게 신약성경으로 인정한 아람어 마태복음 27장 52-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를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144쪽).

●사무엘 진너 박사는 의인 야고보의 조력자였던 토비아(Theboutis-Thobiah)란 사람이 유대인 그리스도교 곧 에비온주의를 견고히 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시킴으로써(76쪽), 결국엔 그 비밀스런 유대인 이단사설들로 교회를 허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75쪽). 그리고 의인 야고보가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에비온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아브라함 영지주의가 지금도 이슬람에 존재한다고도 했다(105쪽).

●랍비들이 토라를 해석(Midrash)하는 단계는 네 단계로 나뉘는데, 문자적 의미를 새기는 ‘페샤트’(Peshat), 심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 ‘레메즈’(Remez), 랍비들의 미드라쉬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데라쉬’(Derash), 토라에 숨겨진 비밀스런(신비한) 의미를 찾아내는 ‘소드’(Sod)가 그것들이다. 유대교의 카발라는 이 ‘소드’ 곧 토라에 감춰진 비밀 또는 신비를 추구하는 유대교 신비주의로써 신플라톤주의에 가깝다고 한다.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는 3세기의 플로티노스(AD 205~270)가 발전시킨 헬라철학의 마지막 형태이다. 529년 그리스도교의 옹호자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것을 금지시킬 때까지 그리스도교 사상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신플라톤주의의 핵심개념은 이렇다. 첫째, 존재에는 여러 단계의 위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물질세계이다. 둘째, 각각의 단계는 그들의 직전 단계에서 유출(발산)된다. 셋째, 각각의 존재는 그것이 유출된 직전 단계로 돌아가고자 한다. 넷째, 각각의 단계는 그들의 직전 단계의 거울이자 그림자이며 모형이다. 이 자연(물질)세계가 하나님을 보는 거울 곧 계시라는 주장과 같다. 다섯째, 최상위의 존재는 최초의 원인, 참 본질, 존재이전 또는 존재 너머의 일자 곧 태초의 빛이다. 존재와 그 위계는 이 태초의 빛에서 유출된다. 따라서 이 태초의 빛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단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물질(육체)세계이다.